

폐 과오종 26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상하*, 손태서, 여동승, 현대성, 이숙영, 김석찬, 최영미, 김치홍, 안중현, 문화식, 송정섭, 박성학,

과오종(hamartoma)은 신체부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양성종양으로 그 중에서도 폐 과오종은 단일 폐 결절의 약 8 %를 차지해 폐의 양성종양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으나 전체 폐종양의 0.25%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드문 질환이다. 이에 저자들은 1990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 부속 성모병원 및 강남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성빈센트병원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진단된 폐 과오종 26례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남자가 12예, 여자가 14예이었고 평균연령은 48.7세로 13세부터 76세까지 분포하였으며 50대가 전체의 26.9%인 7예로 가장 많았다.
- 2) 폐실질내의 과오종이 24예(92.3%)였으며 기관지내 과오종은 2예(7.7%)였다.
- 3) 증상이 없이 우연히 단순 흉부 X선상 발견된 경우가 18예(69.2%)로 가장 많았으며 주 증세로는 기침이 4예(15.4%), 흉부불쾌감 3예(11.5%), 호흡곤란 1예(3.8%) 순서였다.
- 4)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던 경우가 24예(92.3%)였으며,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는 2예(11.5%)로 1예는 기관지내 과오종에 의한 소견이었고 1예는 기저폐질환에 의한 소견이었다.
- 5) 휴연력은 의무기록으로 확인가능하였던 21예중 5예(23.8%)에서 있었다.
- 6) 병변부위는 우상엽 6예(23.1%), 우중엽 5예(19.2%), 우하엽 6예(23.1%), 좌상엽 5예(19.2%), 좌하엽 4예(15.4%)였다.
- 7) 흉부 단순 X선상 팍콘형태 등의 식회화가 관찰되었던 경우는 확인가능 20예중 6예(30%)였으며 흉부전산화단층촬영상 림프절의 종대는 확인가능 14예 모두에서 없었다.
- 8) 조직학적인 진단방법으로는 수술이 21예(80.8%)로 가장 많았고, 전산화단층촬영하 경피생검이 3예(11.5%), 초음파 및 기관지경하 생검이 각각 1예(3.8%)였다.
- 9) 종양의 크기는 장축이 1.0 cm부터 10.0 cm으로 평균 3.82 ± 2.44 cm였다.
- 10) 다른 종양이 동반된 경우는 2예(7.7%)로 악성 흉선종 및 대장암의 폐전이이 각각 1예씩이었다.
- 11)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21.2개월로 이 기간동안 재발한 예는 없었다.

폐암환자에서 E-cadherin 발현양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광주 기독병원 해부병리학 교실*

김유일*, 장일권, 황준화, 박창민, 임명수, 고정행, 김정수*, 김영철, 박경옥

Cadherin은 calcium-dependent intercellular adhesion에 관여하는 transmembranous glycoproteins이며 그중 E-cadherin은 상피세포(epithelial cells)에서만 발현되며 상호유착(mutual adhesion)과 장기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 식도암, 유방암, 전립선암등의 면역조직화학적 검사에 의하면 E-cadherin의 발현은 종양침윤과 전이가 있을때 소실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폐암에서의 의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연자들은 폐암에서 조직형, 폐암의 병기, 분화의 정도에 따른 E-cadherin 발현양상을 관찰하고자 1992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본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경흉부생검술을 이용하여 폐암으로 진단된 225명의 폐암 환자(비소세포 폐암 : 192 예, 소세포 폐암 : 33 예)를 대상으로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시행 하였다. 대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61.0 ± 9.0 세 였으며 남녀 성비는 196 : 29이었다. 염색 결과의 판정은 정상폐세포의 측면경계에 발현된 E-cadherin의 염색정도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50%이상이면 강양성(++), 50%이하 5%이상이면 약양성(+), 5%이하거나 염색이 되지않으면 음성(-)으로 하였으며 염색양상이 선형(linear)인 정상폐세포와 비교하여 선형(linear), 점형(spotty), 미만형(diffuse type), 소실형(absent)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TNM stage가 증가 할수록 염색양상은 선형에서 점형, 미만형, 소실형으로 염색되어지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43$).
2. E-cadherin 염색양상과 종양세포 분화정도는 미분화 종양세포일수록 염색정도가 약하게 발현되었으며 ($p<0.0001$), 분화가 좋을수록 정상양상인 선형(linear)으로, 분화가 좋지않을수록 점형(spotty)이나 미만형(diffuse) 소실형(absent)으로 나타났다 ($p<0.0001$).
3. E-cadherin 염색정도와 염색양상을 비교할때 선형일수록 강하게 염색되었으며 점형,미만형,소실형에서 약하게 염색되거나 음성으로 나타났다($p<0.0001$).
4. E-cadherin 염색정도와 염색 양상은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소세포암 순으로 염색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고, 편평상피암일수록 선형(linear)에 가까웠으며 선암이나 소세포암일수록 점형(spotty), 미만형(diffuse), 소실형(absent)으로 나타났다($p<0.0001$).
5. 비소세포 폐암에서 Lymph node 전이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E-cadherin 염색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p=0.03$).
6. E-cadherin 염색양상은 뇌전이가 없는 경우에 선형과, 뇌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실형과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7. 원격전이 유무(M_0 , M_1)와 E-cadherin 염색정도($p=0.309$), 염색양상($p=0.257$)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E-cadherin의 염색정도는 림프절 전이 정도, 그리고 염색양상은 TNM stage와 뇌전이 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편평상피세포암에서 정상폐세포와 유사하게 염색정도와 염색양상이 나타났으나 선암이나 소세포폐암에서는 염색정도가 감소되어 있고 염색 양상도 정상적인 선형이 아닌 점형, 미만형, 소실형등의 염색양상을 보였다.